

칼빈의 이중은혜론의 의미와 적용*

유태주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I. 시작하는 말

21세기에 접어든 세계는 교회와 신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신앙과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하여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마 5:13-16)이 소금의 짠 맛을 잃어가고 있으며 등불은 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실 온 세계가 공의를 잃어버리고 약육강식에 빠지고 희망을 상실한 주된 요인은 교회의 신학이 타락한 데서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19세기부터 인본주의 신학이 신학의 주류를 이루면서 교회가 진리와 생명력을 잃어버리자, 이에 편승한 명목상의 기독교 국가 지도자들은 약소국들의 인신매매에 만족하지 않고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 그들의 땅을 강탈하고, 20세기에는 역사적 심판의 전쟁을 두 차례나 치르게 된 것이다.¹⁾

그러므로 교회는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에 사명 감당을 위한 최후의

* 이 논문은 '제5회 한국조직신학자 전국대회'(2010년 4월 24일,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발제한 논문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1) 한국칼빈학회, 『칼빈신학개요 1』(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107-109.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회개하며 인본주의화(창 3:5; 딤후 3:1-5)된 신학을 바로잡는 개혁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²⁾ 우리가 21세기에 재정립하려는 신앙과 신학은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중심인 구원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칼빈의 구원론의 핵심은 오직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얻는 이중은혜론에 있다고 보아, 그의 이중은혜론을 간단하게나마 논술하여 그 의미를 밝혀 우리가 공관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칼빈의 이중은혜론 주요 전제

칼빈의 이중은혜론의 주요 전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오직 믿음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을 들 수 있다.

1. 칭의와 성화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직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고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우리의 칭의와 성화의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감당하시려고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시공의 세계 속에 친히 임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예언자요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에게 보내졌다. 예언자 직분은 대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에 대한 선포이다. 예언자 직분을 통하여 먼저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제사장과 왕의 직무가 십자가와 부활로서 확증됨으로³⁾ 세 직분은 모두 중요하다.⁴⁾ 그러므로 제사장과 왕의 직무가 예언자 직무의 도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전체행위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다.⁵⁾

2)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90-112.

3) 이종성, 『기독교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156.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 두란노서원, 2004), 31-51.

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II. xv. 1-6.

5) Alfred Göhler/유정우 역, 『칼빈의 성화론』(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104.

1) 칭의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함으로 속죄제물이 되시려는 데 있었다.⁶⁾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칭의의 질료인이 되신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그의 희생적 죽음에서 필수적인 순종을 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는 인간의 칭의의 기초이다.⁷⁾

칼빈은 제사장직의 본질을 화해와 중보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 무구한 중보로서 자신의 성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심으로 그 제사장직을 완전히 수행하셨다고 증언한다.⁸⁾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⁹⁾ 너무나 완전하고 궁극적이어서 죄에 대하여 형벌 받을 책임을 신자에게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단번의 희생으로 대속하셨다.¹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증거하여왔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실현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마 28:1-10)이 그 사실의 완전한 효력을 입증한다.

2) 성화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¹¹⁾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의 통치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¹²⁾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로서의 통치와 개개인의 주로서의 통치가 그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는 그의 영원한 보좌를 토대로 세워지고(시 89:35-37), 개개인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통치는 이 세상에 속

6) *Institutes*, II. xii. 4.

7) Alfred Göhler, 『칼빈의 성화론』, 104-105; Oiver Fatio, ed. *Confessions et Catechismes de la Foi Reformee* (Geneve: Labor et Fides, 1986), 146-148.

8) *Institutes*, II. xv. 6.

9) Saint Anselm, *St. Anselm: Basic Writings*, tr. by S. N. Deane (La Salle: The Open Court Publishing Co., 1974).

10) 칼빈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회적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교황주의자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만족하지 않고 감히 그를 새로이 제물로 바치노라고 매일 이 짓을 시도하며,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친다고 생각한다.”(*Institutes*, II. xv. 6) 신복윤, “칼빈의 그리스도 이해(III)”, 『신학정론』 18/2 (2000), 431.

11) *Institutes*, II. xv. 5., Alfred Göhler, 『칼빈의 성화론』, 106.

12) *Institutes*, II. xv. 3-5.

하지 않은 영적인 왕국이며(요 18:36)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한다. 그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롬 14:17).¹³⁾

부활 승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의 통치는 인간의 본래적 왕직의 회복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 시 인간에게 부여하신 대리적 통치권(칭지기적 사명)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항상 왜곡되고 죄악 된 형태로 나타났으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본래적 의미가 회복된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며, 주님께서는 그러한 회복된 통치권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¹⁴⁾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인의 필수적인 회개와 성화를 주관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주신다. 특히 중생한 자들의 성화를 점차적으로 완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¹⁵⁾ 그 결과 성화의 기원은 물론이고 성화의 완성까지도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는 제사장적 직무와 연합되어 있다.¹⁷⁾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순결무구한 중보로서 자신의 성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심으로 그 제사장직을 완전하고 궁극적으로 수행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형벌 받을 책임을 신자에게 조금도 남기지 않았다. 또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죄인의 필수적인 회개와 성화를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와 왕적 직무가 합하여 우리의 칭의와 성화의 근거가 되며, 주님의 직무수행의 완전성 때문에 우리의 칭의와 성화 또한 완전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13)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174-175.

14) 앞의 책, 175.

15) *Institutes*, III, xx. 12.

16) Alfred Göhler, 『칼빈의 성화론』, 107.

17) 앞의 책, 104.

2. 오직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1) 성령님의 사역¹⁸⁾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합시키시는 때이다. 그러나 믿음은 성령님의 주요한 사역이다.¹⁹⁾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님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가 성령님의 은밀한 사역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²⁰⁾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 있는 우리의 구원의 전체와 그 모든 부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²¹⁾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때이다.²²⁾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밀한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혜택들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성적 은총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무도 맛볼 수 없는 것이다(롬 5:5; 고후 13:13).²³⁾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의 수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 받는 천국의 보물중의 보물인 칭의와 성화라는 이중은혜도 성령님의 사역으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신자들의 의(義)는 언제든지 믿음에서 온다. 신자들이라도 그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다는 것은 칼빈의 불변의 명제요,²⁴⁾ 성경의 진리이다(요 3:16). 여기에

18)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로 부르게 된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일곱 가지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전달한다고 주장하던 구원론의 총체적 오류를 지적함에 있어서, 성령의 위치와 사역을 회복시켰기 때문이다.” 김재성, 『성령의 신학자 존 칼빈』(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69.

19) *Institutes*, III. i. 4.

20) *Institutes*, III. i. 1.

21) 나용화, 『칼빈의 기독교강요 개설』(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93.

22) *Institutes*, III. i. 1.

23) *Institutes*, III. i. 2.

24)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고 부여잡으면, 우리는 분명히 방금 언급한(그리

서 칼빈은 두 가지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첫째로, 경건한 사람의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의 엄격한 판단에 따라 검토할 때는 정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죄를 면할 만한 행위가 있다고(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자 자신이 죄 짐을 지고 있어서 그 행위도 곧 악화되고 오염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⁵⁾

따라서 거룩함의 원인이 될 수 없는 행위의 의를 믿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행위를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칼빈은 분명히 한다.²⁶⁾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 함 받으며, 의롭다 함 받음과 동시에 가치 없는 행위라도 의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칭의를 얻은 후에 따르는 행위를 중요시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능을 떠맡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는 행위가 칭의의 기능을 믿음과 나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신칭의가 전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행위의 불결(不潔)이 폭로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⁷⁾ 따라서 성경에서 격찬하는 모든 복도 사람이 죄를 사함 받고 복을 받기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복을 받은 후에 다른 복들도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받으므로 그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까지도 자체의 가치 이상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도 불합리한 일이 아니기 때문”²⁸⁾이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완전한 것같이 시인하신다

스도 자신의 의: XX 118) 의로움을 획득 할 것입니다.”(XX 119) 『요한네스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박위근/조용석 편역 (서울: 한들출판사, 2010), 97.

25) “We must strongly insist on these two things: That no believer ever performed one work which, if tested by the strict judgment of God, could escape condemnation: and, moreover, that were this granted to be possible, (though it is not,) yet the act being vitiated and polluted by the sins of which it is certain that the author of it is guilty, it is deprived of its merit.” *Institutes*, III. xiv. 11.

26) *Institutes*, III. xiv. 16.

27) “Nor let us suppose, that after free justification works are commended, as if they afterwards succeeded to the office of justifying, or shared the office with faith. For did not justification by faith always remain entire, the impurity of works would be disclosed.” *Institutes*, III. xvii. 9.

28) “There is nothing absurd in the doctrine, that though man is justified by faith, he is himself not only not righteous, but the righteousness attributed to his works is beyond their own deserts.” *Institutes*, III. xvii. 9.

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인정하는 근거는 ‘용서를 받은 후에 하는 행위라야 용납되기 시작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실 때 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무죄로 우리의 불의가 덮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행위도 모든 허물이 그리스도의 순결로 묻혀 버리며 우리에게 책임이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의롭고 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행위의 의가 믿음과 값없이 얻은 칭의에 의존하며 실현되기 때문에, 이 행위는 당연히 믿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즉 원인에 대한 결과와 같이 믿음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의에는 이신 칭의를 배척하거나 흐려지게 할 권리가 전혀 없다.’²⁹⁾

III. 이중은혜의 원천인 그리스도와 연합

칼빈은 신자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연합교리가 칼빈의 칭의와 성화를 통한 구원론 이해에 핵심이 된다.³⁰⁾

1. 그리스도와 연합

칼빈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시작이라고 보며,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없이는 그가 이루어 놓은 모든 대속사역이 우리에게 무익하다고 말한다.³¹⁾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은혜들은 그리

29) *Institutes*, III. xvii. 10.

30) Alister E. McGrath,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37. 또한, 김재성, 『성령의신학자 존 칼빈』, 72.

31) “Calvin maintains that salvation is only in Christ, and it is obtained in union with Christ through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Jae Sung Kim, “Unto Cum Chris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Calvin’s Theology”(Ph. 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8), 43. 바르트는 지나친 기독교 중심으로 칼빈의 신학에서 성령론을 약화시켰으나, 위 펠트는 칼빈의 개혁교회 건설의 기반이 되는 교리는 성령의 증거론에 있다고 보았다.

스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빈곤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들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시며 행하신 일은 모두가 우리에게 무익, 무가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 안에 머물러야 했다. 그런 까닭으로 그를 우리의 “머리”(엡 4:15),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롬 8:29)이라고 하였다. 또 우리 편에서는 그에게 “접붙임을” 받으며 (롬 11:17),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였다(갈 3:27). 이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기까지는 그가 가지신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³²⁾

그리스도와 연합도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얻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제시된 것, 즉 그리스도와 그의 친교를 모든 사람이 무차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볼 때에 우리는 더 높은 견지에서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을 검토하는 것이 사리에 닿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³³⁾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셔서”(요일 5:6-7) 성령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증거를 하시게 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이다.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신 것처럼, 땅에도 세 증거자 즉 물과 피와 성령이 있다(요일 5:7-8). “성령의 증거”란 말이 되풀이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 증거가 우리의 마음속에 인(印)과 같이 새겨진 것으로 느끼며 그 결과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깨끗케 하심과 희생을 우리 마음에 인 치신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신자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

Benjamin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6), 130.

32) *Institutes*, III, i. 1.

33) “And although it is true that we obtain this by faith, yet since we see that all do not indiscriminately embrace the offer of Christ which is made by the gospel, the very nature of the case teaches us to ascend higher, and inquire into the secret efficacy of the Spirit, to which it is owing that we enjoy Christ and all his blessings.” *Institutes*, III, i. 1.

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벤전 1:2)라고 했다. 이런 말로써 베드로가 설명하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것이 허사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신비롭게 물을 뿌려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으신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바울은 깨끗이 씻는 일과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고전 6:11)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한다.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시는 띠는 성령이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신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통로가 된다.³⁴⁾

2. 칼빈의 ‘그리스도와 연합’ 과 신비주의의 ‘신인합일론’

칼빈의 ‘그리스도와 연합’(union with Christ)과 신비주의의 ‘신인합일론’(神人合一論)은 정반대 개념이다. 신인합일사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자 하는 사탄의 사상이라면, 반대로 교만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처해졌던 인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의 이중은혜론의 원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주의의 신인합일론을 배격한다.

그런데 루터파의 오시안더는 이 하나 됨을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섞이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보고,³⁵⁾ 그 결과 아버지와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신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도 신성전체를 소유한다고 말하였다.³⁶⁾ 이러한 사상은 사실상 사탄적 신인합일론(창 3:5)인 것이다.³⁷⁾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내주(內住)를 신비한 연합으로 설명할 때, 오시안더의 어리석은 혼동에 반대하였다. 칼빈은 그 하나 됨을 ‘본질적’인 것

34)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 183.

35) *Institutes*, III, xi, 5.

36) 원종천, 『칼빈과 청교도 영성』(서울: 도서출판하나, 1996), 38.

37)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7), 98.

으로 파악하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³⁸⁾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개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천상의 삶은 숨겨진 채로 있고,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³⁹⁾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결시키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우선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⁴⁰⁾ 따라서 이 연합은 완전한 연합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 아니라”(엡 5:30; 고전 6:15).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범신론자들의 ‘신인합일’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오는 신자의 전가된 거룩성에 대하여 성경의 계시를 떠나 잘못 생각하면 신비주의나 일반종교철학들이 추구하는 이른바 범신론적(pantheistic)인 ‘신인합일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신인합일론’의 차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어두움의 중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근거로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것은 ‘신인합일론’에 속하는 최악의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범신론적인 신인합일론은 모든 인류는 신의 일부분이 되는 교만에 빠진다.⁴¹⁾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인간성이 파괴되거나 또는 그리스도나 하나님께로 흡수되어지는 것과 같은 본질의 합일이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성숙하고 성화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며, 신자는 신자인 “I”와 “Thou”의 관계라고 말한다(빌 3:7-14).⁴²⁾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신자의 완전한 연합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며,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얻고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롬 6:5).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38) *Institutes*, III, xi, 5, 10.

39) Alfred Göhler, 『칼빈의 성화론』, 31.

40)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74), 450.

41)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49.

42) Henry Clarence Thiessen,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283.

이 전가됨으로 성령의 은사와 함께 열매를 맺게 되는 성화가 이루어진다.⁴³⁾

칼빈의 그리스도와 연합론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죽음에 처해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나 이른바 신인합일론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탄의 사상(창 3:5)이며,⁴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다. 이러한 신인합일을 추구하는 인본주의는 일반 종교철학들의 중추를 이룬다. 힌두교는 자아(Atman)가 명상과 선행을 통하여 대아(Brahman; 비인격적인 우주의 본체) 속으로 용해되어버린다는 사실상 신인합일을 추구하며 그 합일의 경지를 해탈로 설명한다.⁴⁵⁾ 유교도 인간이 도덕적 수련을 통하여 천(天; 극존무대한자)에 이르고자 하는 일종의 신인합일의 인본주의 종교철학임을 알 수 있다.⁴⁶⁾ 이러한 인본주의적 신인합일 사상은 이단들의 중심사상이 되어 교주들의 신격화에 활용되기도 한다.⁴⁷⁾

한마디로 칼빈의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를 겸손과 생명에 이르게 하며, 신인합일론은 교만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양자는 전적으로 반대 개념인 것이다.

IV. 이중은혜인 칭의와 성화

칼빈도 루터처럼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 개념의 강한 범정적 성격을 인정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칼빈에게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운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 자신이 의로워진다고 말할 수 있다.⁴⁸⁾ 그러나 칼빈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는 칭의와 함께 성화 즉 이중은혜(double grace)를 동시에 말한다.

43) 앞의 책, 284.

44)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약속한 인간의 모습, 곧 ‘하나님 같은 인간’(homo sicut Deus)-하나님이 되고자하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이다.”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7), 98.

45) 이동주, 『아시아 종교와 기독교』(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18, 141.

46) 유태주, “칼빈의 구원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 『신학과 사회』 14 (2000년), 17.

47) 진용식, 『무료성경신학원 이만희의 실체는』(도서출판 성산: 2002), 86-90.

48) Alister E. McGrath,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37.

1. 칭의와 성화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일어나는 두 가지 결과가 칭의와 성화이다.⁴⁹⁾ 즉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소유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 첫째 은혜는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므로 하늘의 심판자 대신에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이다. 둘째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우리가 흠없고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성화이다.⁵⁰⁾

1) 칭의

칭의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칭의는 죄의 사면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구성된다.”⁵¹⁾ 그러므로 칭의는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대해서, 마치 그의 무죄가 확정된 것 같이, 죄책이 없다고 무죄석방을 선고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보로 우리가 의롭다 함 받는 하나님의 이 사면은, 우리 자신의 무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자신은 죄인임에도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⁵²⁾

칼빈은 칭의를 죄의 사면으로 해석하며, 율법의 행위에서 분리시킨다. 칭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가? 믿음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³⁾

칭의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기에 하나의 법정적 행위이며, 이 법정적 행위는 그리스도로 인

49) Alister E. McGrath,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37.

50) *Institutes*, III. xi. 1.

51) “Therefore, we explain justification simply as the acceptance with which God receives us into his favor as righteous men. And we say that it consists in the remission of sins and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Institutes*, III. xi. 2.

52) *Institutes*, III. xi. 3.

53) *Institutes*, III. xvi. 1.

한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⁵⁴⁾를 내포한다. 칭의를 가르치는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21-22, 로마서 3:24, 28, 4:25, 8:30, 10:4, 고린도전서 1:30, 6:11,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2:16, 3:11, 24, 빌립보서 3:9 등에 기록되어 있다.

칼빈이 칭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중세 로마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어 의인이 된다는 의화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이요, 믿음만이 아니고 인간의 공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공적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은 칭의의 원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복음에 약속된 의는 ‘믿음의 의’(righteousness by faith)로서, 자기의 의(self-righteousness)나 행위의 의(righteousness by work)와는 철저히 구별하였다.⁵⁵⁾ 인간은 아무도 율법이 제시한 인간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신자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유일하고 완전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받은 ‘칭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죄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용납되어 화해되는 것을 말한다. 칼빈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오는 은혜는 칭의만이 아니고 ‘성화의 은혜’도 함께 있음을 말한다.

2) 성화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되 분리하지는 않는다.⁵⁶⁾ 이것은 칼빈이 로마교회의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또한 루터의 ‘이신칭의론’을 보다 발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성화를 칭의의 지속적인 발전으로서 『기독교강요』 제 III권에서 선행론을 다루면서 언급하고 있다. 칼빈이 선행론에서 말하려는 요지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듯이, 우리의 선행도 똑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⁵⁷⁾

54) *Institutes*, III. xi. 4.

55)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191.

56) *Institutes*, III. xi. 1, 6.

그러나 칼빈의 성화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강조는, 교황주의자들의 공로사상을 배격하기 위함이지, 믿음의 열매로서의 인간의 선행을 포함한 성화를 소홀히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받는 은혜의 열매들로서 모두 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다(고전 1:30).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도 만드신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지혜로 조명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며, 구속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⁵⁸⁾ 이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해진 것이다(행 26:18).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그들의 영적 성장의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불린다(롬 1:7; 고전 1:2; 엡 1:1; 빌 1:1; 골 1:1).⁵⁹⁾

우리는 의와 거룩함을 구별하지만,⁶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시며, 그 둘은 서로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⁶¹⁾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선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둘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13).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이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방법은,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이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신다.⁶²⁾ 한쪽이 있으면

57)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 191.

58) *Institutes*, III, xvi, 1.

59) Henry Clarence Thiessen,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288.

60) *Institutes*, III, xi, 6.

61) “우리가 그 은혜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다면, 또한 그 두 가지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분리할 수 없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결코 다른 은혜 없이 한 은혜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 *Institutes*, III, xvi, 1. 칼빈은 칭의와 성화가 서로 밀접하게 서로 속해 있다고 본다. A. Göhler, 84.

62) *Institutes*, III, xvi, 1.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통일성이 칭의와 성화가 언제나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고, 동시에 인간에 의해 소유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태양의 열과 태양의 빛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성화와 칭의는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이다.” A. Göhler, 『칼빈의 성화론』, 85.

반드시 다른 쪽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행위와 떨어진 것이 아니면서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사실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에 못지않게 또한 거룩함도 포함한다.⁶³⁾

2. 칭의와 성화의 관계

칼빈은 『기독교강요』 초판(1536년)에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어진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주이심을 우리는 의심치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통하여 죄 사함(칭의)과 거룩하게 됨(성화)을 얻음으로 구원도 또한 주시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⁶⁴⁾ 칼빈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의 열매로서 칭의와 성화가 있는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의 소유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견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바울과 야고보를 통한 성경말씀과도 일치한다.

칼빈의 이중은혜론은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사항인 칭의와 성화를 기독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칼빈은 신자들의 그리스도로의 접붙임의 결과, 신자들에게 동시적으로, 그리고 분리되지 않고 수여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호의로서 칭의와 성화를 이해한다. 성화는 칭의의 결과가 아니다. 칭의와 성화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이다.⁶⁵⁾ 이렇게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이른바 인간의 공적은 철저히 배제된다. 동시에 칼빈은 칭의 일변도를 지양하고 성화도 함께 중요시함으로써, 루터가 과제로 남긴 법정적 칭의만의 문제를 보완하였다고 본다. 이에 기독교 구원론 체계가 칼빈의 ‘이중은혜론’으로 재정립되어, 로마교회의 공로주의적 성화문제에 대한 도전도 단호히 배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로마교회와 루터교회는 20세기 말에 와서 이른바 “이신칭의 교리에 대

63) *Institutes*, III, xvi. 1.

6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at Basel in 1536, 43.

65) Alister E. McGrath,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38.

한 공동선언문”(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1997)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믿음에 인간의 공로를 혼합한 로마교회의 인위적 의화론과,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론을 가졌음에도 성화론이 약한 루터교회가 정치적 야합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선언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야합에 불과한 중요한 증거는 루터교회는 칭의론을 복음의 중심교리로 보는 반면에, 로마교회는 칭의교리가 마리아 중보자성과 ‘비기독교종교에 관한 선언’을 비롯한 여러 표준교리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⁶⁶⁾ 이른바 일치 선언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로마교회의 연옥설, 고해성사, 교황주의는 물론이고 바티칸 제2공의회에서 재확인된 마리아 중보자성이 그 중심교리가 되어 있는 로마교회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가진 루터교회가 어찌 정치적 야합이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서야 칭의론에 일치를 선언할 수 있었겠는가 큰 의문인 것이다. 이마 루터교회의 성화론에 대한 신학적 대비가 약한 틈을 타서,⁶⁷⁾ 로마교회가 그들의 믿음과 공적을 적당히 혼합한 의화론을 내놓자 루터교회가 이를 잘 분별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칼빈의 오직 믿음에 의하여 성령님의 신비한 사역으로 ‘그리스도와의 영적연합’으로 신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와 성화가 조화된 이중 은혜론은,⁶⁸⁾ 루터교회의 성화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며, 로마교회의 믿음과 행위를 혼동하는 인위적인 공적설에 입각한 의화론을 철저히 배격하고 극복한다.

3. 성화에 있어서 완전성과 점진성의 조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영적 연합을 통하여 주님의 공로로 의롭다 함 받고 거룩함도 은혜로 받는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66) “칭의교리에 있어서 양측사이의 가장 큰 이슈는 루터교는 칭의교리를 다른 신학적 주제들과 교회의 실천들(직제까지 포함)을 판단하는 유일한 표준(an indispensable criterion)으로 보고, 가톨릭측은 그것을 여러 표준들(several criteria) 가운데 하나로 보는 점이다. “이 형기, “구원론에 대한 양자간 대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 「장신논단」 16(2000), 217-218.

67) 김흥기, 『종교개혁사』(서울: 지와 사랑, 2004), 252.

68) 노영상, “갈뱅신학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화론’ 사이의 관계”, 「장신논단」 제 22집(2004), 202-210.

인한 거룩함 즉 성화에는 은혜로 인한 완전성과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는 점진성이 공존한다.

칼빈은 빌립보서 3장 주석을 통하여 성화는 완전성과 점진성이 상호조화를 이루어야한다는 것을 설명한다.⁶⁹⁾ 칼빈은 이 성경말씀이, 주님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는 완전성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점진성과 상호조화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한편으로는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으므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의 전가로 인하여 용납된 성화의 완전성이 있다.⁷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의 측면이 그러하다.⁷¹⁾ 그러므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17)”고 말씀한다. 칼빈은 이 본문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면함으로 그들이 자기와 같은 결승점에 도달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법도대로 행하도록 했다고 본다. 바울은 진정한 완전이 무엇인가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를 본받음으로 진정한 완전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순전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곧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바울을 본받는 것 안에 순전한 열심, 주님을 두려워 함, 겸손, 자기 자신의 포기, 양순, 사랑,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같은 모든 미덕이 포함되어 있다.⁷²⁾

69) “신자들의 완전 곧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은 그들이 자기들의 결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모든 비행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극도로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용서해주시도록 기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 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 묻어버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다-그러나 우리는 전진을 계속하고 유혹을 받아 정로에서 떠나지 않도록 크게 조심해야 한다-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를 따라) 율법의 완성의 때가 되어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John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tr. by Arthur Golding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7), 38.

70)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Philippians*, 277.

71) 앞의 책, 278.

72) “Observe, that the goal of perfection to which he invites the Philippians, by his example, is, that they think the same thing, and walk by the same rule. He has, however, assigned the first place to the doctrine in which they ought to harmonize, and the rule to which they should conform themselves.”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Philippians*, 280.

다른 한편의 성화는 점진적이며 미래적인 성화이다. 우리의 완전성화의 성취는 하늘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빌 3:20-21).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20).”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지는 연합을 근거로 증명한다고 칼빈은 해석한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머리되신 주님과 떨어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바울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가장 감미로운 위로가 될 것이다.⁷³⁾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용납된 현재의 성화의 완전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21)” 미래적인 완전성화의 성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효적인 새 창조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전의 기초와 화신이기 때문이며,⁷⁴⁾ 모든 것들은 창조주에게만 속하여 있으므로 따라서 만물이 그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⁷⁵⁾ 그러므로 마음을 높여 하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택함을 받은 증거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현재적 성화와 미래적 성화가 조화를 이룸으로 우리의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⁷⁶⁾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으로 선택하심의 증거인 ‘점진적인 성화’(선행)가 없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성화’도 당연히 생각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18-19에 대하여⁷⁷⁾ 칼빈은 목회자 바울이 눈물 흘리는 대상을,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배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

73)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Philippians*, 282-283.

74) Donald G. Bloesch, *The Christian Life and Salvat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7), 92.

75)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Philippians*, 283-284.

76) 앞의 책, 283.

77)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18)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19)”(빌 3:18-19).

음의 능력을 짓밟는 사기꾼들과 방탕한 자들 곧 행함이 없는 신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목회의 능력을 악화시키는 행함이 없는 신자들이, 때로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많은 해를 끼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마다 그들을 골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⁷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 자들이다. 칼빈은 “땅의 것들”이란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오직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즉 육적인 행위를 가리킨다고 본다. 바울은 이런 자들이란 오직 자기의 영광과 안일, 그리고 유익만을 원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데는 게을리 하고 있다고 책망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선언한다.⁷⁹⁾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자처하면서 구원으로 선택하심의 증거인 점진적인 성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성화도 당연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칼빈의 입장인 것이다.

요약하면 은혜에 의한 성화의 완전성과 믿음의 열매로서 성화의 점진성의 상호조화는 상호 보완과 상호 충족되어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추한 선행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장차 생명나무(영화와 영생)에 나아간다.⁸⁰⁾

그러므로 점진적인 성화만 인정하고 은혜에 의한 완전성화를 반대하거나 그 기능을 악화시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신칭의의 내용을 사실상 파괴함으로 ‘산 믿음의 신학’적 기반을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대로 성화의 은혜로서의 완전성만 인정하고 점진성을 무시하거나 그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믿음의 열매인 거룩함 없는 칭의를 초래하여, 역시 ‘산 믿음의 신학’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중은혜인 칭의와 성화의 조화와 함께, 성화에 있어서도 은혜에 의한 완전성과 믿음의 열매로서 선행에 해당하는

78) “Accordingly, consulting their own ease and advantage, they mixed up these corruptions with the view of mitigating the flames of others.”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Philippians*, 282.

79) 앞의 책, 281.

80)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계 22:14).

집진성의 조화를 추구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⁸¹⁾을 증거하고 있다.

V. 칼빈의 이중은혜론 이해의 유익과 적용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함으로 받는 이중은혜론은 여러 유익을 주며, 그리스도인다운 개인과 공동체의 개혁적 삶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이중은혜론은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을 확립시키고,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 추구하게 하며,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지향하게 한다.

1.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 확립

칼빈이 성경을 따라 제시한 오직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받은 이중은혜는 산 믿음의 신학과 신앙을 확립시켜 구원으로 인도한다.⁸²⁾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칼빈은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성립하는 칭의를 꿈꾸지 않는다. 믿음과 선행은 굳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에도 여전히 칭의의 근거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향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⁸³⁾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義)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聖)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다(고전 1:30).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동시에 거룩하게도 만드신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관계로 결합되어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지혜로 조명하신 사람들을

81)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이니라”(약 2:26).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벧 후1:11).

8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at Basel in 1536, 43.

83) “For we dream neither of a faith devoid of good works nor of a justification that stands without them. This alone is of importance: having admitted that faith and good works must cleave together, we still lodge justification in faith, not in works. We have a ready explanation for doing this, provided we turn to Christ to whom our faith is directed and from whom it receives its full strength.” *Institutes*, III, xvi. 1.

속량하시며, 속량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⁸⁴⁾

우리는 의와 거룩함을 구별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시며, 그 둘은 서로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기 원하는 자는 우선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둘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13).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이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방법은,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이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신다.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행위와 떨어진 것이 아니면서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사실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에 못지않게 거룩함을 포함한다.⁸⁵⁾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칭의'와 동시에 '성화'로 표현된다. 이것은 마치 화살이 과녁을 향하여 계속 날아갈 때만 목표물에 도달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또한 칼빈의 성화 이해는 은혜로서의 완전성과 함께 믿음의 열매로서의 점진성과 관계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이며 상호 충족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을 추구하게 하는 유익을 준다.

2.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의 추구

칭의와 성화를 아우르는 이중은혜론은 특히 성화의 완전성은 점진성과 밀착된 관계 속에서⁸⁶⁾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난다.

1)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추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 받고 동시에 거룩하다고 용납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한다(고전6:19-20). 성화의 길에 들어선 우리는 우리 자신의

84) *Institutes*, III, xvi. 1.

85) *Institutes*, III, xvi. 1.

86) *Institutes*, III, xvi. 1.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 소유를 잊어버릴 것이 요구된다.⁸⁷⁾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주님을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하게 된다(롬 14:8, 고전 6:19).⁸⁸⁾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단순히 자기가 칭찬받기위해 선을 행한다. 이러한 자들은 교만하고 무례한 행위를 일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세상에서 이미 상급을 받아버린 자들에 속한다.⁸⁹⁾

따라서 성화의 완전성과 점진성의 조화를 ‘산 믿음’의 중요 요소로 깨달은 성도는 사랑의 통치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악을 선으로 대하며, 저주를 축복으로 대응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

2) 십자가를 지는 삶 추구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할 자로 인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곤란과 노고와 불안이 많은 생애 각양각색의 재앙이 가득한 생애를 보낼 각오를 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모든 제자가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마 16:24).⁹⁰⁾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며 일정한 시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⁹¹⁾ 십자가는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다.⁹²⁾ 의롭다 함 받고 성화의 길로 인도된 우리

87) *Institutes*, III, vii. 1.

88) *Institutes*, III, vii. 1.

89) 존 칼빈/권태경 옮김, 『칼빈의 신앙과 삶』(서울: 도서출판지혜원, 1990), 33.

90)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사(Gabe)에 근거를 두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성취해야 할 과제(Aufgabe)와 책임이다.” 최윤배, “세 가지 종류의 십자가”, 『교회와 신학』 53(2003년 겨울호), 53.

91) *Institutes*, III, viii. 1.

92) 존 칼빈, 『칼빈의 신앙과 삶』, 33.

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복잡다단한 고난의 미로를 통과하여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것같이, 우리도 각양의 고난을 통과하여 같은 영광으로 인도된다(행 14:22).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며,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게 될 때 그의 빛나는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된다(빌 3:10-11).⁹³⁾

3. 교회와 사회 개혁 지향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 개인에 필요하며 동시에 공동체적으로도 필요하다. 모든 면에서 인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이 인간이 된다.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만의 자유를 찾으려고 자유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 자신의 자유를 잃게 된다. 그때부터 세상과 자기 자신과 자연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 노예화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추구하면서 자신의 자유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 있다.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간은 새 본성을 받는다. 새 본성은 성화를 통하여 인간의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인 삶에 나타난다.⁹⁴⁾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 개인은 물론 교회와 사회 공동체의 개혁을 추구하였다.⁹⁵⁾ 하나님의 주권이 가정, 교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세계 모든 영역에 달하기 때문이다.⁹⁶⁾ 그러므로 칼빈은 개인과 함께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국가의 주인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였다.⁹⁷⁾ 곧 세속국가도 그리스도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통

93) *Institutes*, III, viii, 1.

94) André Biéler/박성원 역,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30-2.

95) “칼빈은 ‘하나님은 인간이 교제의 존재가 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였다.” 앞의 책, 35.

96) *Institutes*, IV, i, 1.

97) 칼빈은 영적 통치와 세상 통치를 분명하게 구별하여보면서도, 교회와 국가가 그리스도의

치가 교회와 국가 속에서 모두 실현되는 역사적인 목표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국가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 통치자 밑에 있는 관리들은 백성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하고 백성들을 대변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뜻과 법에 어긋난 모든 것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즉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통치자가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 복종해서는 안 된다.⁹⁸⁾ 그리고 가난한자를 착취하는 부자들에게 칼빈은 살인자요 야만인이며 가난한자를 물고 삼키는 자며 피를 빼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규탄하였다.⁹⁹⁾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성취해야 할 과제와 책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완전성화를 점진적인 삶의 열매를 통하여 나타낼 때 성취되는 것임을 칼빈은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오직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받은 칭의와 성화의 이중은혜는 산 믿음의 신학과 신앙을 확립시켜 구원으로 인도한다. 특히 성화의 완전성은 점진성과 상호보완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를 부정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유익은 개인과 사회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인 유익은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을 소유하게 함에 있다.

VI. 맺음말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초판에서부터 최종판까지 이중은혜를 언급하고 있다. 칼빈의 이중은혜론의 주요 전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오직 믿음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을 들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있어야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아무리 주님의 속죄사역이 크다 한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기에 성령님의 사역이 반드시

한 주권의 시행양식으로 보았다.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윤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70.

98) *Institutes*, IV, xx, 31.

99) John Calvin, *Sermon XLIV on the Harmony of the Gospels*, Matt. 3: 9-10. 정성구, “칼빈주의와 사회”, 『신학지남』 62/1(1995년 봄호), 102에서 재인용.

시 필요하다. 그러나 칼빈의 그리스도와 연합과 신비주의의 신인합일론은 정 반대개념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겸손과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신인합일론은 교만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양자는 전적으로 반대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칼빈의 이중은혜론의 원천인 그리스도와 연합은 일반종교철학에 만연되어 있는 신비주의의 신인합일론을 배격한다.

칼빈도 루터처럼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 개념의 강한 법정적 성격을 인정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얻는 칭의와 함께 성화를 동시에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 첫째 은혜는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므로 하늘의 심판자 대신에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는 칭의의 은혜이다. 둘째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우리가 흠 없고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성화의 은혜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이 내 새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이른바 인간의 공적은 철저히 배제된다. 동시에 칼빈은 칭의 일변도를 지양하고 성화도 중요시함으로, 루터가 칭의론에 있어서 과제로 남긴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본다. 이로서 기독교원론체계가 칼빈의 오직 믿음을 통한 ‘이중은혜론’으로 재정립됨으로, 로마천주교의 공로주의적 성화문제에 대한 도전도 단호히 배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혜에 의한 성화의 완전성과 믿음의 열매로서 성화의 점진성의 상호 조화는 상호 보완과 상호 충족되어,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추한 선행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룩하다고 인정해주신다. 칼빈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중은혜인 칭의와 성화의 조화와 함께, 성화에 있어서도 은혜에 의한 완전성과 믿음의 열매로서 선행에 해당하는 점진성의 조화를 추구함으로 성경적 ‘산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칼빈의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함으로 받는 이중은혜론은 여러 유익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칼빈이 성경을 따라 제시한 오직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받은 이중은혜는 산 믿음의 신학과 신앙을 확립시켜 구원으로 인도한다. 둘째, 칼빈의 칭의와 성화를 아우르는 이중은혜론은 특히 성화의 완전성과 점진성이 조화된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인도한다. 셋째, 이중은혜론은 개인은 물론 교회와 사회 공동체의 개혁을 추구하게 한다.

21세기에 접어든 세계는 교회와 신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신앙과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 칼빈의 구원론의 핵심인 이중은혜론은 그리스도인다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과 신학의 재정립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신앙과 삶을 살기 위한 운동이 개인과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으로 전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주제어 —

칼빈, 이중은혜론, 오직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 칭의, 성화, 산 믿음(Calvin, the double grace, faith only, the union with Christ,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 living faith).

* 접수일: 2011년 7월 23일, 심사완료일: 2011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1년 8월 31일

참고문헌

1차 자료

- 칼빈, 존/권태경 옮김. 『칼빈의 신앙과 삶』. 서울: 도서출판지혜원, 1990.
- 칼빈, 존/박위근, 조용석 편역. 『요한네스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서울: 한들출판사, 2010.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at Basel in 1536, trans. F. L. Battl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7.
- Calvin, Joh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trans. Arthur Golding.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7.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Philippians*. trans. Arthur Golding.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7.

2차 자료

-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7.
-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04.
- 김재성. 『성령의신학자 존 칼빈』.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 김홍기. 『종교개혁사』. 서울: 지와 사랑, 2004.
- 나용화. 『칼빈의 기독교강요 개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노영상. “갈뱅신학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화론’ 사이의 관계.” 「장신논단」 제22집(2004), 202-210.
- 신복운. “칼빈의 그리스도 이해(II).” 「신학정론」 제18권 2호(2000).
- 원종천. 『칼빈과 청교도 영성』. 서울: 도서출판하나, 1996.
- 유태주. “칼빈의 구원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 「신학과 사회」 제14집(2000년).
- 이동주. 『아시아 종교와 기독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윤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이종성.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이형기. “구원론에 대한 양자간 대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 「장신논단」 제16집(2000), 217-218.
- 정성구. “칼빈주의와 사회.” 「신학지남」 제62권 1집(1995년 봄호).
- 진용식. 『무료성경신학원 이만희의 실체는?』. 도서출판 성산: 2002.

최윤배. “세가지 종류의 십자가.” 『교회와 신학』 2003년 겨울호 제55호.
한국칼빈학회. 『칼빈신학개요 1』.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Biéler, André/박성원 역.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Göhler, Alfred/유정우 역. 『칼빈의 성화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Anselm. Saint. *St. Anselm: Basic Writings*. Tr. by S. N. Deane. La Salle: The Open Court Publishing Co., 1974.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74.
Bloesch, Donald G. *The Christian Life and Salvat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7.
Erickson, Millard J.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Fatio, Oiver ed. *Confessions et Catechismes de la Foi Reformee*. Geneve: Labor et Fides, 1986.
McGrath, Alister E.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Thiessen, Henry Clarence.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Warfield, Benjamin B.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56.

Theological Implications of Calvin's Doctrine of the Double Grace

Tae Ju Yu

Professor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Wanju, Korea

John Calvin referred to the double grace in hi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from the first edition to the last edition. Two important presuppositions of the double grace of John Calvin are the work of atonement of Jesus Christ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rough faith. Because the work of atonement in Jesus Christ is real, humanity can claim this as its own. Bu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also needed, and even the work of atonement of Jesus Christ is of no use without the concept of the "union with Christ." But "the union with Christ" and the "the oneness of god and man" are perfectly opposite in conception. "Union with Christ" guides one toward humility, but the 'the oneness of god and man' guides one toward life. Therefore "union with Christ" is opposed to the "the oneness of God and man."

Calvin has no hesitation in agreeing with Martin Luther when considering justification by faith in the nature of a court proceeding. But Calvin says that sanctification with justification which leads to the "union with Christ only takes place by faith. We can receive the "double grace" in the "union with Christ." First, grace is a grace of justification made possible through Christ who is innocent, who appears before the gracious Father who is the Judge of heaven. Second, grace is the grace of sanctification in which we can live a pure life without flaw through the Spirit of Christ.

In Calvin, the works of man are excluded, because both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re given by the grace of God, so that man cannot boast of anything. Therefore, it seems that John Calvin provides a solution to a problem which Martin Luther could not resolve, through the way that Calvin deals with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together. As a result, the challenge of meritorious sanctification in the Roman Church can be rejected, because the Christian soteriological system has been re-constructed by Calvin as the double grace through faith alone.

God recognizes good works as perfectly sacred in Jesus Christ, even if they fall short before God's eyes. The perfection of sanctification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progression of sanctification as a fruit of the faith are harmonized through their complementary cooperation. Calvin testifies to the harmony betwee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those double graces which only happen by faith. And he also testifies to the living biblical faith through the harmony of the perfection and the progression in sanctification.

If we really understand the double grace of John Calvin which is received from the union with Christ only by faith, it can give us many benefits. First, it guides us to salvation through a living faith. Second, it guides us through the life of the cross and the denial of self. Third, this double grace helps us to seek reformation of the individual, the church, and the society.

The world of the 21st century is calling Christians and churches to hold on to the real Christian faith and to live real Christian lives. In this situation, the double grace which is the main point of the soteriology of John Calvin will help to rebuild a living faith. And it is my hope that this living faith movement will expand to include a reformation in the social life of all humanity.